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과 삶*

황준욱**

I. 머리말

2012년 봄 방영된 네 남자의 일과 사랑과 우정을 그린 TV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배우 장동건의 직업은 건축가였다. 같은 해 배우 수지(극 중 서연)의 풋풋하면서 아픈 기억을 남겼던 첫사랑의 상대였던 승민(배우 엄태웅)의 직업도 건축가였다. 이렇듯 건축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고 낭만적인 직업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의 직업과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가는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된다¹⁾. 건축가의 대표적인 일은 건축 혹은 공간에 관련된 기획을 하거나 기획안을 설계를 통해 구체화하거나, 설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건축물 혹은 공간의 제작과정을 감리하거나, 혹은 건축 및 공간에 대한 평가 및 평론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11~'12 Job Map은 건축가라는 직업을 건설관련직(대분류)-건축 및 토목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중분류)에 속하는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세분류)라는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²⁾ '11~'12 Job Map에 따르면,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수는 137,600명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 2,400만 명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319.2만 원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7.5년이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예정인 이승렬 외(2013), 『프리랜서의 노동과 위험: 프리랜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의 일부를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소수연구원 대표(hjunwook@gmail.com).

1) 인터넷 다음 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10508&q=건축가>.

2) 통계청, Job Map 참조. <http://www.work.go.kr/jobMap/jobMapByName.do?jobCd=1411>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의 90% 정도는 남성으로 매우 남성 편중의 직업이며,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가 전체의 77%에 달하는 고학력 직업이다. 이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가 5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50대 이상이 22%로 고령층 노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비중도 5.4%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건축가는 이러한 일들을 개인 혹은 파트너(동업자)와 함께 건축설계 사무소를 차려 스스로 사업자가 되어 수행하거나 건축 및 설계 회사의 피고용인이 되어 수행한다. 사업자가 되어 수행을 하는 경우, 피고용인이 없이 혼자 하거나 피고용인을 두어 보다 규모가 큰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체도 차리지 않는 자영업자의 형태도 존재한다. 이렇듯 건축가는 자영업자, 사업주, 피고용인, 프리랜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직종이다.

이 글은 프리랜서 건축가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진입, 일감, 네트워크, 보상 및 근로 환경, 행복, 경력형성과 조직 활동 등을 설명한다³⁾. 이를 위해 프리랜서이거나 경험이 있는 건축가 3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루어진 3개의 인터뷰와 2명의 일주일 생활 요약표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명의 연령대는 각각 40대 중반, 3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30-40대이다. 전공은 모두 건축관련이며 학력은 박사과정, 대졸, 박사로 모두 대졸 이상이다. 건축 관련 자격증은 1명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명은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였다⁴⁾. 이 중 1명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1명은 그렇지 않다. 40대 중반인 건축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30대 건축가들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명 모두 결혼을 하였으며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중 2명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며 제주에서 활동도 겸하고 있고 1명은 거주와 활동 지역 모두 제주이다.

II. 프리랜서 건축가는 어떻게 프리랜서가 될까?

건축가가 프리랜서로 진입하는 일은 큰 결정 혹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진입하거나 혹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

-
- 3) 프리랜서 건축가는 사업체도 차리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와 사업체를 차려서 활동하지만 피고용인을 두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 4) 건축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증은 건축기사와 건축사이다. 관련 전공을 교육받고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후 건축기사와 건축사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획득한다. 과거에는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험을 쌓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비교적 프리랜서라는 노동 방식에 친근한 직종임을 보여준다. 또한 기획, 설계, 감리 등 건축가의 일 중 많은 부분이 규모가 적은 경우 회사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의미한다.

인터뷰에 응한 건축가들이 프리랜서에 진입하게 되는 과정은 모두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존 고용되어 일하는 일자리가 많은 일을 요구했지만 이에 걸맞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기존 일자리보다 프리랜서를 택하였다. 두 번째 경우도 개인적 사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였다. 휴양을 위해 제주도로 이주하면서 프리랜서를 선택하였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적 성향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 동료(파트너)와 함께 설계사무소를 차려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한 세 번째 경우도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설계사무소를 차리게 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과거 생활과 성향 등을 고려한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건축사가 프리랜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건축가에게는 건축기사, 건축사 등 자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격이 있으면 일감을 수주하고 일을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건축가에게 있어 프리랜서 선택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에 진입하는 것은 일자리와 소득에 있어 불안정과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에 응한 건축가들은 프리랜서 선택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불안정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 대비는 주로 소득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직업을 가지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안정적 수입을 갖고 있거나, 사업 영역에서 비교적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Ⅲ. 프리랜서 건축가는 어떻게 일을 구할까?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일감을 구하는 일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신의 할 일이 다른 사람 혹은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3명의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감을 얻는 과정에서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일감의 불안정성이며, 둘째는 일감의 연결성, 셋째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다.

적어도 인터뷰에 응한 세 건축가 중 어느 누구도 일감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 경우 모두 일감이 안정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불규칙한 일감은 프리랜서의 직무와 생활에 있어 불안감을 주는 주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함은 새로운 일을 저지르는 데에 주저를 하게 하거나, 무언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프리랜서 하게 되면 그 ... 그냥 일을 저지르지 못하는...”
(건축가 B)

“예. 뭔가 잡아야. 예. 일단은 언젠가는 만나야 될 사람이면, 지금 빨리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케줄을 잡고,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서울 가서 좀 쉬고, 여기서 서울 올라가면 거의 탈진해요.” (건축가 A)

이러한 일감의 불규칙성의 이유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일을 주는 사람 혹은 기관들이 불규칙적으로 일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계절, 예산, 지역적 특성, 시장의 수급 상황 등과 관련되어 있다. 외부 요인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일감을 주는 곳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감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프리랜서적 내부적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신이 일을 따라 한다는 부담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인터뷰에 응한 건축가들은 자신의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한 건축가는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건축가의 일주일간 일과를 기재한 일정표에는 건강을 염려하는 건축가의 고민이 들어 있다.

일감의 불규칙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프리랜서 건축가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일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하거나 미리미리 하는 등 작업속도 혹은 납기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납기일을 좀 빨리 마쳐드려요.” (건축가 B)

(그게 계속 일을 좀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건축가 B)

일감 수주 과정에서 지적되는 또 다른 특징은 일감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하는 일의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프리랜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시장 상황,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회사에 고용되어 다른 사람 혹은 회사의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자신의 할 일을 부여받는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상호 관련이 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과 공공건축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건축가는 자신의 많은 일들이 연관되어 있고 많은 일들이 갤러리를 열게 되면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의 둘째 의미는 일감을 주는 사람(발주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리랜서 일감 수주 방식이 주로 아는 사람들의 추천이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가 B는 ‘알음알음’으로 일감을 탄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프리랜서 건축가들의 일감을 주는 사람들 혹은 기관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프리랜서 건축가의 직업 활동 및 업무에 있어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에 응한 세 사람 모두 사람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 1~2년만 해도 가능은 하고요, 인맥이 중요한 거 같아요.” (건축가 B)

(인맥이?)

“예. 집 지을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많이 따는 거고요. 없으면 못 따는 거고요.”

(건축가 B)

“뭐...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거...” (건축가 C)

프리랜서 건축가에게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될까? 네트워크 형성은 각 개인 혹은 조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의 특수적인 네트워크도 있는 반면, 업무수행과정 중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업무상 네트워크도 있다.

가장 기초적인 네트워크는 각 프리랜서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이다. 업무상 네트워크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주로 업무 수행에 있어 프리랜서가 가지는 전문 영역 및 결과물과 관련되어 있다. 인터뷰에 응한 공공건축 기획을 주로 하는 프리랜서 건축가는 인터넷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소셜 네트워크가 일감을 얻는 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감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일을 수행할 때 같이 할 사람들을 찾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많이 제가 얻습니다.” (건축가 A)

실제로 프리랜서 건축가에게 네트워크는 평판이라는 말로 작용한다. ‘누구누구를 아느냐’보다는 ‘그 건축가 어때? 그 설계사무소 어때?’ 등으로 표현되는 평판이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감 수주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평판은 두 가지 네트워크의 혼합으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네트워크, 특히 개인적 네트워크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상 네트워크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 네트워크와 평판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답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일 처음에 딸 때만 그러는 거고… 중요한 거 같고, 일 계속 주는 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일하니까 주겠죠.” (건축가 B)

프리랜서 건축가에 대한 평판이 형성되는 과정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우선, 평판은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건축기사, 건축사 등 자격의 여부 및 종류와 큰 관련이 없으며, 설계사무소 등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와도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건축가로 시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자신을 알리고, 자신을 인정받는 일은 한꺼번에 되기보다는 조금씩 점차 돼 가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와는 평판을 형성하는 데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경과되는 기간 중 자신의 능력과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반된다.

IV. 프리랜서 건축가는 어떻게 일할까?

인터뷰에 응한 프리랜서 건축가는 모두 자신의 일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활용하는 계약 형태는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존재한다.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 내용, 보상 금액과 느슨한 형태의 납기가 정해진다.

프리랜서 건축가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있어 프리랜서 노동의 특징인 프로젝트 단위로 건당 얼마의 방법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이 다 끝나고 난 후 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축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건축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특성하에서 다음 단계가 끝나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그 전 단계의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다.

보상방법은 금전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터뷰에 응한 한 건축가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았던 경험도 있다고 털어 놓는다. 이러한 특이한 보상 방법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프리랜서가 가지는 계약상의 일종의 자유로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분 이제 건축주분이 프라모델 만드시는 분이라 내가 설계비를 프라모델로 받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 사실 가서 설계비 약간 좀 조정해드리고…” (건축가 A)

공공기관, 대규모 회사 등과 서면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소규모 설계사무소로부터 일을 받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일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겪었다고 말하는 프리랜서 건축가도 있다. 이는 주로 기획이 이루어지고 난 후 설계 및 건축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나, 공정하지 못한 발주자와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의 악의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 건축가는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다음에 일감이 들어올 때 이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 바닥이 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알음알음으로 일감이 연결되는 프리랜서 노동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3명의 건축가들의 근로시간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 중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불규칙성이다. 이러한 자유로움과 불규칙성은 많은 경우, 주야간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며, 평일과 휴일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무시간의 자유로움 및 불규칙성이 일에서 프리랜서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건축가들은 자신들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에서 자율성은 일을 준 발주자가 어떠한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 의하면 거의 모든 건축가들은 실제 노동 방식과 관계없이 어디든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가 직종에 존재하는 건축사 및 건축기사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하며, 경력 산정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험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환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축가들 대부분은 비록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동시에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어, 주된 노동 방식은 프리랜서지만 부분적으로 고용된 건축가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건축가들은 비록 주된 노동방식이 프리랜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에 들어가 있다. 인터뷰에 응한 세 사람 모두 프리랜서 기간 중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프리랜서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일에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업도구 측면에서도 자신의 작업도구는 자신이 마련한다. 또한 작업장소도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이런 환경하에서 인터뷰에 응한 건축가들은 자신을 노동자라기보다는 자영업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배경은 각자 달라 각각 일에

5) 건축가의 경력을 인증하는 대표적 기관들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인협회의 경력 인정의 주요 기준은 4대보험을 적용받았는가이다. 따라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만,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4대 사회보험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고 있다.

비례하는 보상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스스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프리랜서 건축가의 업무 창의성에 대한 생각은 자영업자라는 생각과는 약간 달리 일관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설계만을 담당하는 건축가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설계사무소를 차리고 기획부터 설계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건축가는 자신의 업무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프리랜서 건축가의 업무 창의성은 자기가 얼마나 완결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작업만 하는 프리랜서는 비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프리랜서 건축가는 어떻게 경력을 쌓고 단체활동을 할까?

프리랜서 건축가의 경력 형성은 직업활동,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자격취득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프리랜서와 관련되어 세 사람의 경력형성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우선,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한 경우는 대학을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대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프리랜서를 시작하였다. 다른 한 경우는 대학 졸업 후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설계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다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들어섰다. 마지막 경우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학위기간 중 프리랜서에 가까운 시간제 근로를 하였으며,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고 직원 없이 파트너와 함께 1인 자영업자 방식으로 프리랜서 생활을 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프리랜서 건축가의 경력 형성은 건축기사, 건축사 등 자격시험의 준비, 취득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진입, 형태, 지속기간 등이 자격시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한편 세 사람의 경우를 종합하면,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처음부터 프리랜서가 되어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계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프리랜서, 피고용인, 고용주라는 세 가지 노동 형태 간 이동 및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직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설계를 혼자 힘으로 허가까지 완결 지을 수 있다는 특성, 건축 과정이 여러 사람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가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언제까지 건축가를 하고 싶은가라

는 질문에 대해 한 건축가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앞으로도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할지 여부는 건축사 시험에 대한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는 건축가 B는 자격을 따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에는 설계사무소를 차리고 필요하다면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축가 A는 장래에도 현재의 프리랜서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행 법규하에서 건축가의 경력 증명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건축가로서 경력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등록된 건축가들의 경력을 증명해 주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는다. 하지만 등록이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가협회는 경력증명 이외에 건축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협회 이외에 건축가들의, 특히 프리랜서 건축가들의 모임 혹은 조직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응한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VI. 프리랜서 건축가는 행복할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여가로부터 행복을 얻는다. 여가 시간은 많은 경우, 자신의 개인 생활 혹은 가정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프리랜서 건축가 역시 자신의 일과 여가로부터 행복감을 가진다. 행복감은 일과 가정 간 조화, 일과 생활에서 만족감 등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근무시간을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건축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과 가정 간에 조화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반드시 일과 가정생활 간 공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점이 낮에 아무 때나 제 시간을... 시간을 제가 잠 안 자고 그냥 일을 하면 되니까. 시간에 대해 자유로우니까. 어디든 평일 날에도 어디든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갔다가 밤에 일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좋고요. 그런데 단점이라 하면, 그렇게 어디 놀러 갈 때 아니면 특별히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가... 애기 얼굴을 못 볼 때가 많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다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운동 가서 사무실에 있다가 애들 잠 잘 때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건축가 B)

또한 앞서 본 프리랜서 건축가의 근로시간에 있어 밤과 낮, 평일과 휴일 간 근로시간 경계의 모호함은 일과 개인생활 또는 일과 가정 간 관계가 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일과 가정 간 관계가 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근로시간에서 자유로움과 불규칙성은 인터뷰에 응한 건축가들의 일주일 생활시간표들을 보아도 나타난다. 평일 낮에 스크린골프를 즐기기도 하고, 주말 저녁에 가족들이 잠든 후에는 전공 서적을 탐독하기도 한다.

프리랜서 건축가의 만족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에 대한 만족도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이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건축가 B는 다른 사람이 기획한 일 중 일부를 맡아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성취감이 적거나, 자신이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에서 불만족감은 자격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신이 전체를 맡을 수 있게 되면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완결적인 일을 하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건축가 C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감은 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건축가 A는 자신의 일을 하는 데 건축사 자격증이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각 건축가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인터뷰에 응한 3명의 건축가 모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적(혹은 자영업자적) 생활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감을 주는 요소로 가족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렇죠.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가, 마음이... 일은 많더라도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퇴근시간 전에 해야 야근을 안 하니까 이 시간에 꼭 끝내려고 막 하는데, 프리로 하면서는 안 되면 뭐 새벽에 하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도 편하고 낮에... 뭐 볼 일 꼭 봐야 되는데 이러면 낮에 꼭 그 시간에 봐야 되잖아요... 낮에 그 일은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막 사무실 눈치 보면서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는 나갔다 온다고 해서 나갔다 와서 또 밤에는 좀 더 늦게 하면 되니까... 마음적으로는 편한 거 같아요.” (건축가 B)

VII. 프리랜서 건축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인터뷰 내용에서 보았듯이 3명 인터뷰 대상자들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리랜서 선택의 자발성은 우선, 대부분 건축가들이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이 현실적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건축기사 혹은 건축사 자격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국가 자격으로 확보된 상태는 개인이 프리랜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건축가의 자발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건축가의 업무 특성이다. 건축기획 혹은 건축설계는 회사에 고용되거나 혹은 고용인을 두지 않고 혼자 혹은 파트너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작업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건축가가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데에는 현재 건축가가 대면하는 시장상황과 관련이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더라도 일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프리랜서 지위,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리랜서의 전문적 능력 제고와 이를 공인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리랜서들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프리랜서에게 일감의 불규칙성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는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엄연히 일정 정도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측면에서 프리랜서들의 일감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은 일감의 확보에 개인적, 직업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일감 확보 안정성은 프리랜서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확대시키고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현재 일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개방적인 직업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건축가 개인에 대한 평판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직업별 혹은 지역별 공적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종별 프리랜서들의 일감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개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온라인상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인터

넷 사이트 등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프리랜서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가들의 조직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협회가 존재하지만 경력관리 등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리랜서 건축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혹은 모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 및 단체 활동의 소극성 또는 미비는 건축가 전체의 공동 이익의 구현에는 물론, 특히 고용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건축가들의 권익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직종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 활동을 정부가 공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프리랜서 건축가들의 자발적인 단체 활동 활성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프리랜서들의 자발적인 조직 및 단체 결성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LI**

<참고문헌>

인터넷 다음 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10508&q=건축가>
통계청, Job Map, <http://www.work.go.kr/jobMap/jobMapByName.do?jobCd=1411>